

용담호 관광개발 밑그림 그린다

진안군, 주변 관광 활성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나서

진안군은 주요 관광지인 용담호의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용담댐 건설로 만들어진 용담호는 대한민국 5위의 저수량을 자랑하는 인공호수다. 지역에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시 수위를 조절하는 댐과 저수지의 본질적 기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5위의 저수량을 자랑하는 인공호수인 진안군 용담호 전경

현재는 댐체와 댐마루, 댐 주변 부대시설의 복합적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용담호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통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진안군은 용담호 일원의 개발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고 주변 자연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관광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순 일회성, 나눠주기식 지원계획이 아닌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인한 개발한계, 인구감소 및 낮은 지방재정지급도에 부딪혀 저성장세로 침체된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항로 군수는 "용담호 수변과 수

변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용담호와 그 주변지역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친수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소득창출 밀원수 확대 조성

장수군, 지속가능 산림자원 기반 마련 예산 25억원 투입

장수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 25억원을 투입, 소득창출 밀원수를 확대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확대 조성 조성은 소나무, 백합나무 등 경제수 조성 120ha(36만본), 소나무, 잣나무 등 산림재해방지조립 25ha(3만8000본), 상수리, 헛개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조립 50ha(9만5000본), 소나무, 백합나무 등 편백나무 피해복구 조립 398ha(79만6000본)에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을 활용한 소득창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향기나는 벌꿀 생산단지 조성' 민선7기 공약사업을 위한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 밀원수

450천본을 식재해 산림소득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약 5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조립 사업을 시행한다. 장수군 관계자는 "산림을 활용한 주민 소득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림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신바람 나게 일하자... 무주군 2월 월례초회 개최

무주군은 최근 2월 월례초회를 갖고 새 달, 새 각오를 다졌다. 이 자리에 함께 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200여명의 공무원들은 '신바람 나게 일하자'라는 주제의 영상시청과 함께 당면 업무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2019년은 도약의 해이자 2월은 실행의 달"이라며 "적극적인 마음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하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주력해보자"

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음을 써줄 것과 △교통과 상·하수도 등 설 연휴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빙기 재난피해와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고 전기누전과 화목보일러로 인한 주택화재를 막기 위한 안전의식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황 군수는 "하루에 한두 명 씩

이라도 인구가 늘어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다"라며 "무주다운 무주가 만들어질 때, 무주에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인구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만큼 전 직원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월례초회 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 황인홍 지부장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 누구를 위해 왜 하는가?"라는 주제의 소양교육이 진행됐다. 우리사회와 공무원의 현실과 노동조합의 역사와 현황 등이 강의돼 관심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최근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식생활안전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관련 홍보물 배포 등

무주군은 최근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미성)와 함께 식생활안전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무주(읍) 장남을 맞아 반달불시장을 비롯한 무주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실시된 이날 캠페인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주도해 군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좋은 식단 실천, 간소한 상처림, 나트륨 저감화 등)홍보물과 물티슈, 핫 팩 등을 배포해 호응을 얻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어패류는 수돗

물에 세척하고 중심온도 85℃로 1분 이상 가열하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세척·소독하기 ▲조리도구 소독하기 ▲주변 환경 청결하게 유지하기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예전엔 날이 추워지면 식중독 걱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추위도 발생을 하니 큰일"이라며 "안내문 내용 꼼꼼하게 읽어 보고 실천해서 건강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김영령 위생관리 팀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균의 증식이 활발해져 식중독을 일으키는 만큼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주민 대상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견학 활성화

무주군은 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견학을 활성화시켜 환경마인드를 심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초·중·고 교원 및 학생,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쓰레기 처리(재활용)와 침출수처리과정에 대한 교육과 해양 동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플라스틱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 시청하고 매립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광역전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쓰레기 반입 과정에서 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자원 재활용시설에서 캔, 스티로폼, 전자제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의 수거·처리과정을 견학하게 된다.

침출수 처리시설에서는 유입과정부터 처리되는 과정을 전문가 설명과 함께 볼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이형재 자원순환 팀장은 "신청을 하시면 누구든 환경교육부터, 견학까지 1~2시간 코스만 만나볼 수 있다"라며 "특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해서, 또는 체험학습 등으로 참여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갖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관내 교육청과 학교 협조를 진행하고 찾아다니는 주민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신청 및 문의 320-2335)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맞춤형 축산분야 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기반 확충

장수군은 2019년도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가 맞춤형 축산분야 사업 총 16개 분야에 163억여 원을 투입·추진한다.

사업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FTA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품사료 자급기반 구축 5개 분야 26억여 원,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 3개 분야 39억여 원, 안전축산물 생산 및 브랜드 강화 4개 분야 13억여 원, 고품질 풀생산 지원 4억여 원, 가족방역 지원 27억여 원, 말 산업 육성에 54억여 원 등 총 16개 분야 163억여 원을 투입해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축산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1:1 전담 공무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축산 관계자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농가 맞춤형 축산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고원 운장산고로쇠축제 총회

진안군은 최근 남구현 축제위원장을 비롯해 축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준비를 위해 주천면사무소에서 1차 총회를 가졌다.

2019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는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주천면 대불리 운일암반일암 삼거리광장에서 '진안 고로쇠먹고, 젊음의 행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기본계획과 예산 집행계획 등 축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 화합형 축제를 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청정패션쇼 등 신규 참여프로그램과 고로쇠 관련 먹거리를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진안고원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판로를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남구현 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젊음과 복고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운장산 고로쇠축제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